



SUCCESS 2007



아이디어 도출을 위한 몇 가지 제안

‘지치고 짜증난다.’, ‘화끈해서 좋다!’

이 두 상황 중 ‘여름’이란 낱말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면 좋을까? 나의 상황과 컨디션에 따라 다를 것이다. 아이디어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정말 내 머리에서 나왔단 말인가? 싶도록 멋진 생각이 연달아 떠오를 때도 있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아 답답하다.

1년의 절반을 보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벤처인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퐁퐁 솟아나게 하는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한다. 매출도 기술개발도 ‘하, 하, 하’ 웃는 하반기를 위하여!

1

생각의 무게를 다이어트하자.

- 심각? Oh~ No! 이래도 될까 싶은 정도로 유치한 발상도 해 보자. 내 머릿속 생각은 아무도 모르니까 부끄러울 것도 없다. 유머와 창조력은 늘 함께한다. 마음을 즐겁게!

2

서로 다른 두 가지를 합쳐 본다.

- 자명종과 시계를 합친 자명종시계, 연필과 지우개를 합쳐 지우개 달린 연필이 만들어졌고 길레에 막대기를 달아 대길레가 만들어졌다. 주변을 한 번 둘러보자. 합칠 수 있는 건 무엇일까?

3

마음 속에 목표를 정한다.

- 홀인원 장면을 떠올리는 골프선수와 골 세리머니를 준비하는 축구선수와 멋진 다이빙 자세를 상상하는 다이버처럼 아이디어와 관련된 장면을 상상한다. 아이디어에 따른 보상을 상상해보는 것도 좋다.

4

어린이의 천재성을 배우자.

- 어느 하루는 나를 둘러싼 규칙을 무시하자. 아이디어 낼 일이 있으면 이렇게 물어 보자. '내가 학교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깊은 곳에 있던 동심을 깨우자.

5

틀에서 벗어나자.

- 습관에 길들여지지 않기 위해 9년 동안 매일 다른 길로 출근했다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는 안 해도 절대 듣지 않던 라디오 방송이나 음악을 들어보자. 혹은 그림책도 좋다. 평소에 같이 가지 않던 사람과 점심을 함께 하자.

6

기록하자.

- 일기를 언제 써 보았는가? 공책을 한 권 마련해서 머리에 떠오르는 것을 그냥 적어두자. 그리고 공책이 찢 때 쯤 그것을 읽어보자. 그 속에 있는 전혀 다른 나를 만나자.

7

생각하는 방식을 바꿔보자.

시각적인 사고_ 아인슈타인은 언어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한다. 개념이 이미지로 먼저 떠오르면 그것을 언어나 공식으로 표현했다는 것이다. 사진작가 만 레이는 여인의 토르소를 첼로로 보았고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집이 독립된 구조물이 아니라 풍경을 이루는 필수 요소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앞에 있는 서류, 나사, 볼펜을 한 번 다른 시각으로 보자. 자신만의 독특한 사고 방법을 터득하는 연습을 한다.

'마감'을 둔다_ 마감을 정해놓고 일이나 생각을 한다. '마감'이란 게 때로 초능력을 부르기도 한다.

다른 분야에서 도움이 구한다_ 제임스 리터라는 사람은 그의 식당에서 돈을 받는 직원이 돈에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도록 현금이 들어오는 것을 기록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러던 중 증기선 위에서 프로펠러의 회전수를 세고 기록하는 장치를 보게 되었고 그 원리를 적용하여 세계 최초의 금전 등록기를 개발했다.



몸은 아이디어를 장전하고 있는 총이다. 여름을 즐기자. 즐기는 동안 총구에도 윤이 날 것이다. '신중하게 결정하고 과감하게 방아쇠를 당겨라. 행동이 따르지 않는 생각은 세상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필립 C. 맥그로의 말이다. 반짝이는 총이 준비됐는가? 그렇다면 아이디어의 샘에 빠져보자. 그리고 확신이 선다면 용기를 내어 실행에 옮기자. 성공은 행동하는 벤처인의 것이니까.